

중소기업 도약 · 민생경제 회복 ‘집중’

전주시, 실질적 · 체감 가능한 지원 시책 추진키로

전주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민 경제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장기화된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와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시는 중소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 △경영안정 지원 △제조기업 고도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등 3대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시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중소벤처 혁신 펀드운영 등 금융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기업당 최대 3억 원 이내의 이자 차액을 3.5%까지 지원하고, 총 283억 규모의 중소·벤처·창업기업의 성장주기별 맞춤형 펀드를 신설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등 문화·콘텐츠 산산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지난해에 이어 시 공무원들이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각종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기업전담 매니저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통해 지난해 총 296건의 기업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는 중소기업 지원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시기별 기업지원 시책 홍보 및 실시간 기업 애로사항 접수가 가능토록 하는 등 기업 애로 해소에 더욱 신속하게 다가가 계획이다.

동시에 시는 △기숙사 임차료 지원 △제조물 책임보험 지원 △전주형 고용안정 지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교육 등의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전북형 제조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인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제조기업의 생산공정 자동화와 데이터 기반 시스템 구축과 같은 지능형 공장 도입에서부터 공간 배치와 설비 관리, 노동환경 개선 등 전반적인 제조기업 혁신을 선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6월 중소기업 13개사를 선정해 기업별 스마트 시스템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 11개사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제조기업을 대상 기존에 추진해온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 △소규모 사업장 안전시설물 보강 지원사업 등과 맞물

려 기업의 생산력 향상과 청년이 모이는 제조 현장 구축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으로 시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 지원 △바이전주 우수업체 브랜드 육성 및 마케팅 지원 △여성기업 육성 마케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시는 최근 지속되는 고환율로 인한 수입·수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수출과정에 필요한 무역보험·보증 가입비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수출보험료 부담률을 낮이기로 했다.

여기에 시는 지난해 베트남경제사절단 방문 결과에 따른 성과로 동남아 수출 확대 지원을 신규 추진, △베트남 현지 유통망 입점·관로 개척 △바이어초청상담회 개최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주에서 생산된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베트남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된다.

/김옥기 기자



한국전력 전북본부 연원섭 본부장은 지난달 31일 '2036 하계올림픽 전북유치 기원 GBCH 챌린지'에 동참했다.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연원섭 한전 전북본부장, 도민의 염원 담아 챌린지 동참

한국전력 전북본부 연원섭 본부장은 지난달 31일 2036 하계올림픽 전북유치 기원 GBCH 챌린지'에 동참했다.

'GBCH(Go Beyond, Create Harmony) 챌린지'는 '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를 뜻하는 것으로, 새로운 화합과 연대의 가치를 통해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올림픽 유치에 대한 도민의 염원을 담고 있다.

전북농협 이정환 총괄본부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한 연원섭 본부

장은 "한전에서는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위해 무절점 전력 공급에 힘쓰겠다"며 "전북이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연원섭 본부장은 챌린지 다음 주자로 한국표준협회 이진구 전 북지역본부장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박주량 전북지사를 추천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농협, 설명절 폭설 대비 철저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설명절 기간 동안 전북특별자치도에 내린 기록적 폭설과 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관내 14개 시군지부를 중심으로 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상황 발생에 따른 즉각 대응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최대 42.5cm 폭설이 쏟아진 전북 지역에선 완주·임실·진안 등에서 축사 붕괴하는 등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다.

전북농협은 설 명절 기간 중에도 피해 발생 지역 시군지부를 중심으로 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농업인의 피해 현황 파악 등을 실시하여 관내 지자체와 공유하며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전북농협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29일 축사가 무너진 진안군 백운면 오리농가를 직접 찾아가 시설물 피해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이정환 전북농협 총괄본부장은 "모두가 행복해야 할 설 명절 기간 동안 폭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과 농업인을 바라보니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농진청, 대설 피해 상황 점검 · 현장 기술지원 방안 모색

재해대책상황실 운영 · 긴급 점검 회의 개최... 지역별 대설 피해 발생 상황 파악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지난달 28일~29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린 대설로 인한 농업시설물 파손·붕괴 피해 복구와 영농 재개를 위한 신속한 기술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가 기상 재해에 대비해 겨울철 농작물·농업시설물 관리 요령을 전달하고,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현장 관리도 당부했다.

앞서 농촌진흥청은 설 연휴에 예보된 대설 전망에 따라 전국의 20만여 시설 재배 농가에 휴대전화 문자, 온라인 정보 메시지(알림톡) 등을 보내 미리 대응 조치를 안내했다.

특히, 인삼·블루베리 농가는 방조망 시설 견어내기를 독려하고,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지자체 부단체장과 충청,



호남의 24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장은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농진청은 지난달 27일과 28일, 농촌지원국장 주재로 도 농업기술원 관계관이 참여해 각 시군 피해 상황 점검을 위한 영상 회의를 열었다. 또, 31일에는 재해대응과장이 대설경보가 내

려졌던 전북 진안 임실을 찾아 현장 상황을 살폈다.

이번 대설 특보 기간 중 농촌진흥청의 겨울철 재해대책상황실에서는 지역별 내재해형 하우스 적설심 이상의 폭설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대상 지역 시설 농가에 1일 3회 적기 대응요령을 문자 발송, 현장 상황을 1일 2회 이상 점검했다.

다음 주에도 눈이 예보됨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각 지방농촌진흥기관에 기상특보를 신속히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수확 중이거나 출하가 예정된 작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생육 상황에 맞춘 현장 밀착 지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김옥기 기자

무진장 농어촌공, 농지연금사업 시행 중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이양희)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농지연금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근거하고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농지연금사업은 60세이상, 영농경력 5년이상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

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된다.

농지연금의 장점은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농지연금 담보농지의 6억원까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고, 농지연금지급

이 통장에 가입하여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 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이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는 사업대상자가 2년이상 보유한 농지로서 주소지를 담보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연결하는 시, 군, 구에 주소지를 두고, 주소지와 담보 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가 해당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aT 홍문표 사장, 명절 긴급대책 추진사항 점검회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홍문표 사장은 지난달 31일 나주 본사에서 설 명절을 대비해 성수품 공급,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특화상품 판매, 농수산물 수출 상황 모니터링 등 긴급대책의 추진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aT는 지난달 7일부터 설 성수기를 맞아 배추 2000톤, 마늘 400톤, 양파 1400톤 등 주요 농산물을 집중 공급 중이다. 아울러 역대 최대인 700억원 규모의 국산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도 6일부터 29일까지 추진했다. 특히 배추, 무, 단감, 쪽파 등 28개 품목에 대해 전통시장, 대형·중소형 마트 등 1만 3000여 개소에서 최대 40%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등 농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온라인도매시장과 직거래 장터에서 농산물 판매를 확대해 유통비용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했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판매자에게 운송비의 50%를 지원하고, 사과 등 9개 품목의 설 성수품 특화상품은 시중보다 1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했다. 과천 바로마켓 등 직거래 장터에서 농축산물 할인지원과 명절 선물 세트를 판매하는 설맞이 행사도

진행했다.

농수산식품 수출 비상 상황도 대비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공사의 20개 해외 조직망이 24시간 대응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출기업의 윈스톱 애로 상담창구인 "수출정보데스크"를 휴일 없이 가동해 차질 없는 수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했다.

한편 국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인적·물적자원의 안전 점검과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했다. 설 연휴 비상 연락 네트워크로 직원들의 사고나 질병 등 이상 유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전 사업장에 안전보건 담당자를 배치해 폭설로 인한 공사의 시설물 피해 예방과 점검에 힘썼다.

또한 본사와 지역본부 전체가 참여해 아동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34개 복지시설에 온누리상품권 기부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 문화 확산과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섰다고 aT는 밝혔다.

홍문표 aT 사장은 "설 연휴 기간을 비롯해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사의 본연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